

글램과 펑크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 1970년대를 중심으로 -

정 희 영* · 정 현 숙*

동의과학대학 미용계열 ·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Glam and Punk Hairstyle - Focused on The 1970s -

Hee-Young Jeong[†] and Hyun-Souk Jeong*

Division of Cosmetology,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07. 3. 14. 접수 : 2007. 10. 30.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widen and deepen the understanding of external environments of hairstyle but also to provide the basis of understanding and perspicacity as to the hairstyle which will be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new music by contemplating distinctions between Glam Fashion and Punk Fashion of 1970s and by comparing and analyzing distinctions between Glam Hairstyle and Punk Hair Style of 1970s. As the method of this study, first of all four common factors, which are resistance, androgynous, beauty of ugliness and pursuit of pleasure through persona, were able to be abstracted from both Glam Fashion and Punk Fashion of 1970s, and then by using that factors as analyzing instrumental frame, the above two hairstyl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photographic materials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ing and analyzing two hairstyles above, in Glam Hairstyle, the androgynous character is the most remarkable distinction. They tried to overturn the gender role by challenging the traditional color and form of hairstyle. In Punk Hairstyle, the resistance is the most prominent distinction. They expressed their group identity resisting a pre-existing generation by putting on threatened and aggressive hairstyle.

Key words: glam punk hairstyle(글램 펑크 헤어스타일), resistance(저항), androgynous(앤드로지너스), beauty of ugliness(추의 미), persona(페르소나).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헤어스타일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요소이며, 패션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헤어스타일이 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사적인 영역이지만 가시적이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적인 특성을 지니며, 패션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적 함의를 지닌다.

특히 1970년대 전반에 유행했던 글램 헤어스타일

[†] 교신저자 E-mail : jhy0701@hanmail.net

(Glam Hairstyle)과 197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펑크 헤어스타일(Punk Hairstyle)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기존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과 욕구불만을 강력히 표현한 힙과 불만의 돌파구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은 대중매체의 힘을 입어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현대 패션과 헤어스타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글램 패션과 펑크 패션은 197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꽃을 피웠던 록 음악의 한 갈래인 글램 록(Glam Rock)과 펑크 록(Punk Rock)의 영향 아래 성장하였다. 글램 록과 펑크 록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음악 장르였으며, 젊은이들 사이에 저항 문화를 형성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글램 록은 부르주아(Bourgeois) 성 이데올로기(Sex Ideology)가 지배하는 주류 문화를 풍자적으로 비꼬았으며, 펑크 록은 사회 체제를 직설적으로 비난하였다¹⁾. 로커(Rocker)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와 감정을 세상에 알렸고 패션과 독특한 헤어스타일, 피기스런 메이크업 등 가시적인 외모를 통해서 더욱 더 부각시켰다. 이처럼 젊은이들은 음악과 헤어스타일, 패션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추구하였던 것이다²⁾.

글램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현주(2000)³⁾의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글램의 특징을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장식, 소재의 부조화 속의 조화, 남성복의 과다한 장식, 글리터 메이크업으로 분석하였다.

김은아(2000)⁴⁾의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컬렉션에 나타난 글램 스타일을 크래프트 글리터 스타일, 앤티 예코 스타일, 슬랜더 매니지 스타일, 재패니스 포크 스타일로 구분하였다. 글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글램이 최근 패션에서 차

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글램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펑크를 주제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임은혁(2003)⁵⁾은 21세기 전환기 하이 패션에 나타난 펑크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모호성, 절충성, 해체성 등으로 분석하였다. 손향미, 박길순(2005)⁶⁾의 연구에서는 현대 펑크 패션의 특성을 텍스트의 중첩, 매체의 변용, 소서사(Micronarrative)의 대두, 이미지의 복제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 밖에도 글램과 펑크 패션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글램과 펑크는 최근에도 유행하고 있으며, 패션에서 차지하는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인 글램과 펑크의 헤어스타일만을 별도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1970년대의 글램 패션과 펑크 패션의 특징을 고찰한 후 그들의 공통적 특성을 추출하고 추출된 공통적 특성을 분석의 틀로 하여 1970년대의 글램 헤어스타일과 펑크 헤어스타일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질서와 관습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흐름을 알 수 있으며, 추후 새로운 패션의 영향으로 발생할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해의 기반과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 글램 패션과 펑크 패션의 특징은 패션 및 미용 관련 서적과 논문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헤어스타일 관련 사진 자료는 패션 및 미용 관련 서적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수집하였다.

본 논문은 패션에서 드러난 특징을 헤어스타일 비교분석의 틀로 이용함으로써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

1) 서이자, "포스트보통 음악의 등장과 민중문화 전통의 재기-1970년대 글램 록과 펑크 록에 대한 신문화사적 해석," *미국사 연구* 16호 (2002), pp. 251-252.

2) 김순자, "펑크스타일의 상징적 의미와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52권 6호 (2002), p. 141.

3) 이현주, "현대 패션에 나타난 Glam에 관한 연구-David Bowie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4) 김은아, "글램 스타일의 디자인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5) 임은혁, "21세기 전환기 하이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펑크 록을 중심으로-" *복식* 53권 2호 (2003), pp. 71-85.

6) 손향미, 박길순, "현대 펑크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29권 11호 (2005), pp. 1444-1453.

7) Royshuker, *대중음악사전*, 이성업, 정호연 역 (서울: 한나래, 1999), pp. 59-60.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II. 이론적 배경

1. 글램 패션의 특징

글램은 1970년대 초반 영국에서 시작된 하위 문화로서 1960년대 말 반문화의 진지함에 대한 반작용이며, 또한 그것의 확장이었다⁸⁾. 글램 패션은 글램 록 가수들의 패션에 영향을 받아 발전되었다. 글램 록(Glam Rock)이란 글래머(Glamour)의 줄인 말로 사선적인 의미는 ‘현란한’ 혹은 ‘매혹적’이란 뜻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글램 록은 글리터 록(Glitter Rock)으로도 불리어졌는데, 글리터(Glitter)는 ‘현란, 휘황찬란한’ 등의 의미가 있다⁹⁾.

데이빗 보위를 중심으로 하는 글램 록에서는 냉성하면서도 인위적인 도시의 감각을 나타냈다. 팬터바임 예술가 린세이 캠프(Lindsay Kemp)의 제자였던 데이빗 보위는 세심하게 가다듬어진 양성적 이미지를 선보임으로써 캘리포니아의 블루진에 익숙해 있던 록 팬들을 경악시켰다¹⁰⁾. 이들의 스타일은 저항적이고 과격한 부대 매너로 표현되었지만, 언더그라운드를 따라 퍼져나가면서 대중화 되어가기 시작했다¹¹⁾.

<그림 1>은 현란한 글램 패션을 입고 공연 중인 뉴욕돌스(New York Dolls)의 저항적이며 앤드로지너스적인 모습이다.

양성성(Androgyny)과 양성애(Bisexuality) 요소는 글램 이미지의 일부였다¹¹⁾. 마크 볼란과 로드 스투어트, 데이빗 보위가 여성처럼 화려한 의상에 진한 메이크업과 과격한 색상으로 머리를 염색하여 퍼기스런 추의미를 표현한 순간부터 남성기에 대한 재고(再考)가 예정되었다.

<그림 2>의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고 지나치게 화려한 패션을 착용한 마크볼란의 모습에서 추의미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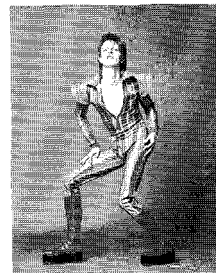
1969년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것을 기점으로 상상과학에 관련된 물체나 색채는 디자이너와 건축가



<그림 1> 복식 문화 (유송옥의) p. 289.



<그림 2> www.changgo.com/past/artist



<그림 3> www.5ycars.com/costume.htm

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패션에서도 다양한 최첨단 신소재를 사용한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그림 3>은 데이빗 보위의 첫 번째 지기 스타디스트(Ziggy Stardust) 패션이다. 무겁고 뻣뻣한 금속성의 은색 우주복인 이 옷은 진분홍색, 은색, 청색을 지닌 점퍼수트(Jumpsuit)였다. 이 의상은 데이빗 보위가 ‘스페이스 오디티(Space Oddity)’를 부를 때 입곤 했는데 이것은 우주인의 페르소나를 표현한 모습이다. 그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저항적인 패션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대중문화 속에서 1970년대 글램 록 가수들의 의상은 우아미와 세련미를 중시하는 종래의 복식 개념에서 탈피하는 혁명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펑크 패션의 특징

8) J. A. Simson and E. S. C. Weiner,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 552.

9) 김경희, “Street Fashion의 발생과 유행현상”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21.

10) 김은아, *Op. cit.* (2000), pp. 10-11.

11) Royshuker, *Op. cit.* (1999), pp. 5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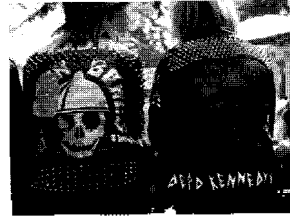
Douglas A Russell(1983)¹²⁾은 “펑크란 사회적 개념이 의미하는 모든 종류의 극단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지나친 메이크업, 의상, 머리 염색 그리고 태도를 말한다. 그 이름은 펑크 록 뮤직으로부터 왔으며 스타일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펑크 록 밴드(Punk Rock Band)의 허무주의적인 추종자들에 의해서 입혀졌다.”고 하였다.

펑크는 변화 과정에서 어떤 다른 스타일족보다도 많은 세계적인 논란을 야기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안내자였던 펑크는 매우 절충주의적이었다. 로커(Rocker)의 모터바이크 재킷, 사이키델릭(Psychedelic)의 인공적인 색상 등 다양한 자료로부터 스타일적인 영감을 끌어낸 다음 독창적으로 혼합하였다. 펑크족의 의상, 번쩍이는 금속제 장신구, 화려한 헤어스타일, 단순한 흑백의 메이크업은 너무도 대조적이어서 추미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것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서 결합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특성이며 거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한 복식 상의 혼란이 펑크 이데올로기(Punk Ideology)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펑크의 속성은 주류 스타일과 패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¹³⁾.

<그림 4>에서와 같이 재킷에 조야한 글과 전사의 페르소나를 그려서 만든 펑크의 DIY 재킷은 남녀 모두에게 선호되었으며, 저항과 앤드로지너스를 표현하였다.

하위 문화 스타일에서는 개성의 표현을 강조하여 많은 의류가 집에서 만들어졌다. 중고 의류 시장 또한 젊은이들의 불확실한 경제적인 지위와 정통적인 복고 의류에 대한 열정을 반영하면서 많은 하위 문화 스타일에 영향을 미쳤다. DIY는 제도권을 거부하고 급진적으로 차별화 시키는 방법이 되었으며, 펑크는 최초의 DIYER들이었다. 반가치적, 반대중적 움직임, 찢어진 청바지, 충격적인 헤어스타일과 직접 그림을 그리고 버튼을 만들어 단 검정 가죽 재킷 등은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다¹⁴⁾.

<그림 5>는 닥터 마틴 부츠를 신고 초록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펑크족의 저항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스타일은 남녀 구별을 어렵게 하였다.



<그림 4> *Street Style* (Ted Polhemus), p. 90.



<그림 5> 복식미학강의 2 (김민자), p. 182.



<그림 6> *Street Style* (Ted Polhemus) p. 8.

<그림 6>은 나비를 주제로 한 잔드라 로즈의 펑크 웨딩드레스이다. 기존 복식 디자인의 원리를 벗어나 제 멋대로 가위질을 하여 구멍을 내고 옷핀과 체인으로 아름다운 레이스와 트리밍을 대신하여 추의미를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의 글램 패션과 펑크 패션의 공통적 특성을 저항, 앤드로지너스, 추의미, 페르소나 등 네 가지로 요약하고 이 공통적 특성을 연구의 틀로 사용하여 제 3장에서 글램과 펑크 헤어스타일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 글램 패션과 펑크 패션의 공통적 특성

1) 저항

다양한 하위 문화 집단에서 자신들의 특수한 정체

12) Douglas A. Russell, *Costume History and Style*, (New Jersey: Englewood Cliffs & co. Inc., 1983), p. 513.

13) Ted Polhemus, *Streetstyle From Sidewalk To Catwalk*, (London: Thames & Hudson Ltd., 1997), p. 93.

14) 김순자, *Op. cit.*, (2002), p. 146.

성과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현재의 유행과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외모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크게 반유행으로 볼 수 있다¹⁵⁾. 반유행은 그 상징적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주류 유행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글램과 펑크는 청소년들의 저항적 하위 문화이다. 엘튼 존(Elton John)의 ‘Benny and the Jets’에서 드러나는 부모에의 반항에서부터 펑크록의 무정부주의에 이르기까지 록 뮤직은 폭 넓은 저항의 스펙트럼을 갖는다¹⁶⁾.

저항은 주류사회가 정한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주류 문화에 속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단들은 심리적으로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게 되었고, 주류 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하여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행동양식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의복, 외모, 언행 등에서 독특한 스타일을 강조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집단정체성을 학습한다¹⁷⁾.

2) 앤드로지너스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앤드로스(Andros)’는 남자를, ‘지나케이(Gynaceia)’는 여자를 뜻하며,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적인 옷차림새로 남성 지향을, 남성은 여성적인 옷차림새로 여성 지향을 추구하며 즐긴다는 뜻이다¹⁸⁾.

장구한 세월을 면면히 이어왔던 남성 중심의 성이분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1960년대, 그리고 히피 운동과 록(Rock)의 남성 영웅주의로 인해 여성의 남성화가 선호되던 시대의 끝 무렵에 글램 록이 전면에 내세우고 등장한 여성화된 남성의 외양과

양성에 스타일은 18세기 말 이래 부르주아가 그토록 혐오스럽게 관념화한 구체제 귀족 남성들의 여성화 현상과 닮았다¹⁹⁾. 펑크 또한 남녀 구별 없이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감으로 지나친 메이크업, 과장한 의상, 독특한 머리 염색과 스타일 등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기존의 성관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지배적인 가치에 대해 의식적인 대립을 표현하였다²⁰⁾.

3) 추의 미

추(醜)는 가치의 붕괴나 생의 부정이지만 예술 일반에서는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며 미적 가치에의 전환이다. 이에 추는 가치의 ‘카타르시스적’인 의미로서 파악되는 것이다. 힘이나 불쾌의 감정을 일으키는 추가 다양한 개별간의 충돌과 구별, 대립을 통하여 가장 인간적인 문제로 상승되어짐을 현대에서는 많이 관찰할 수 있다. 추(醜)는 미(美)의 대립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대립적인 개념은 아니고 다만 미(美)가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미적 규범에 위배되고 미적 관조를 방해하는 것 즉, 반미(反美)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반미학(反美學)이라 함은 시공을 초월하여 확고한 경계를 해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체계화와 동질성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다²¹⁾. 20세기 후반기 복식 문화에서 반문화적 스타일, 펑크 스타일은 추의 충격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을 회복하고자 비명을 지르고 있다²²⁾. 글램 스타일 또한 독특한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서 추의 미를 표현하였다.

4) 페르소나

페르소나(Persona)는 본래 고대 그리스의 연극배우가 쓰는 탈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그것이 점차

15) 유송옥 외,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2000), p. 274.
 16) 정혜순, “팝뮤직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15.
 17) 유송옥 외, *Op. cit.*, (2000) p. 274.
 18) “앤드로지너스,” *NAVER 백과사전* [2006년 11월 8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search.naver.com/>
 19) 서이자, *Op. cit.*, (2002), p. 259.
 20) 김순자, *Op. cit.*, (2002), p. 148.
 21)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반미학(Anti Aesthetics) 열린 패션(Open Fashion)을 중심으로,” *복식* 38호 (1998), p. 109.
 22) 김민자, *복식미학 강의 1*, (서울: 교문사, 2004), p. 219.

인생이라는 연극의 배우인 인간 개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철학 용어로는 이성인 본성(本性)을 가진 개별적 존재자를 가리키며, 인간, 천사, 신 등이 페르소나로 불린다²³⁾.

페르소나에서의 가면은 인간의 가장 외적인 인격으로 인격의 가면을 말한다. 즉 사회적 자아로서 사회적 역할에 따라 명명 되어지는 ‘~으로서의 나’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가 분화되고 한 사람이 사회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개인의 페르소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페르소나는 집단성인의 한 단면이며, 그것은 흔히 개성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가면(Mask)이다²⁴⁾.

글램과 핑크 스타일에서는 그들의 패션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표현하였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III. 공통적 특성에 의한 글램과 핑크의 헤어스타일 비교

1. 지향

헤어 길이의 측면에서 남성의 긴 머리카나 과도하게 짧은 머리, 또는 여성의 짧은 머리는 젠더에 따른 일반적인 헤어 규범을 거부하고 반대의 헤어스타일을 고의로 채택한 것으로 이는 기성 사회에 대한 저항과 기존의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상징한다.

헤어의 색상 역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데 테크노 컬러나 핑크, 자주, 그린, 오렌지 등 형광 염료로 염색한 핑크의 험란한 헤어 색상은 그들을 다른 집단과 현격하게 구별시키며 저항과 이탈을 상징하였다²⁵⁾.

1) 글램 헤어스타일

글램 헤어스타일에서는 반규범적인 헤어스타일을 하였으며, 남성적인 단정함을 버리고 과장되게 부풀림으로써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였다. 글램

록 가수들 중 남성 가수들은 대부분 긴 머리에 퍼머를 하거나 퍼머한 머리를 과장되게 부풀린 헤어스타일을 하였다. 또 윗머리는 짧게 자르고 뒷머리를 길게 남기기도 하였다. 반면에 여성 가수들은 남성적인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였다.

과거에는 의례적 또는 종교적 목적에 의해 헤어의 색상에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헤어색상의 변화가 저항과는 무관했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록커들이 전통적 헤어 색상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글램 록 가수들은 주황색이나 파란색 염색을 통해서 미래적, 우주적 이미지와 더불어 기존의 이상적인 색상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었다.

<그림 7>은 전통적인 남성의 헤어 길이에 반하는 긴 머리에 강한 웨이브의 퍼머를 한 모습이다.

<그림 8>에서는 윗머리를 짧게 커트하여 깨끗하게 세움으로써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는 머리에 백콤(Back Comb)을 넣어 헤어스타일을 과장하고 파란색으로 염색한 엘튼 존



<그림 7> www.vegas.eclipse.co.uk/images



<그림 8> www.5years.com/costume.htm



<그림 9> www.cmpas.com

23) “페르소나,” *NAVER 백과사전* [2006년 11월 8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search.naver.com/>

24) 이부영, *분석 심리학-C. 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1978), pp. 82-83.

25) 권기영, “현대 패션에서 헤어스타일이 지나는 의미-젠더와 문화 정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8호. (2004), p. 1103.

(Elton John)의 모습으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2) 펑크 헤어스타일

펑크는 부르주아 문화와 그 문화의 상품을 조성하고 판매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펑크는 사회 체제 및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는 저항 문화의 소산으로서 모든 인습과 규범에 반대하고 사회와 무제한의 원칙을 내세우며 소란과 질규를 표현하였다. 그들은 대중의 생활 질서에 대한 반역과 극단적이며 도전적인 성격을 통하여 대중에게 충격을 주고자 하였다. 보편적인 헤어스타일에서는 머리카락 끝이 두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길게 늘어지도록 연출한다.

그러나 <그림 10>과 같이 펑크 헤어스타일에서는 머리끝이 위를 향하도록 뽀족하게 세웠다. 헤어젤이나 헤어스프레이 등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DIY 정신이 뚜렷한 펑크들은 집에서 밀가루와 물, 실탕 등을 사용하여 스스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또한, 호전적이며 적극적인 도전을 의미하는 빨간색과 공포를 의미하는 초록색을 각 스파이크마다 다르게 염색하여 보색의 대비를 통한 강렬한 저항 의지를 표현하였다. 붓처럼 뽀족한 스파이크 헤어스타일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그림 11>의 윗머리를 날카롭게 세우고 노란색으로 염색한 헤어스타일에서도 강한 저항 의지가 표현되었다. 펑크의 복식에서 가지는 색상의 특징이 건정색인데 반해 헤어스타일에서는 검정색 이외에도 노랑, 빨강, 초록, 주황색, 형광 물감 등 화려한 원색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고 외부 세계와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적 의지를 드러내었다.



<그림 10> 비룡학과 미용 문화사 (진선정 외), p. 206.



<그림 11> Street Style (Ted Polhemus) p. 8.



<그림 12> 서양복식 문화사 (장홍숙) p. 395.

<그림 12>는 빌머리를 완전히 밀어 버리고 위의 머리만 남겨서 강한 저항의 상징인 빨간색으로 염색한 모습이다.

이러한 펑크의 모발 염색은 기성세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부정적으로 비추어졌지만 그들만의 스타일을 창조하고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클럽 헤어스타일은 전통적 헤어 길이와 색상에 상반되는 반규범적인 스타일로 저항을 표현하였고 펑크 헤어스타일은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헤어스타일로 기성세대에 저항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클럽 헤어스타일과 펑크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저항

구분	클럽 헤어스타일	펑크 헤어스타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머리에 퍼머를 한 헤어스타일과 윗머리를 짧게, 윗머리는 길게 늘어뜨린 헤어스타일, 머리에 백분을 넣어 부풀린 헤어스타일 등 반규범적인 스타일로서 저항을 표현하였다. - 기존의 이상적인 모발색에 반하는 색상으로서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등으로 염색을 하여 저항을 표현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인 뒤편 모양의 헤어스타일과 스파이크 모양의 헤어스타일을 통해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었다. - 기존의 이상적인 모발색에 반하는 색상인 노랑, 빨강, 초록색 등의 화려한 원색으로 강렬한 저항의지를 드러내었다.

2. 앤드로지너스

1970년대 들어서 대중 앞에서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욕망과 이것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어 더욱 더 자유롭게 표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화려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반짝이는 소재와 모피가 남성복에 사용되어 남성복의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화를 보였다²⁶⁾.

양성성(Androgyny)과 양성애(Bisexuality) 요소는 글램 이미지 호소력의 일부였으며, 이들의 스타일은 히피 복장의 우아함과 스킨헤드의 무정함을 결합한 것이었다. 글램 록 뮤지션들은 지속적인 자기 변신을 통해 고정된 이미지를 벗어났으며, 시각적 이미지 강화를 위해 메이크업과 중성적인 복장을 표현수단으로 삼았다. 저마다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로 분류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던 글램 록 뮤지션들은 도시적이고 차가운 느낌의 음악으로 매혹적이지만 거리감을 조성하는 외모를 연출하였다.

핑크는 이전의 하위문화보다 더 과격하고 전위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외모에 남성적 요소를 부여하였다.

1) 글램 헤어스타일

앤드로지너스 복은 하나의 스타일 속에 양성의 이미지를 융합시켜 표현함으로써 자유로운 개성에 따른 패션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는 여성 같은 남성, 남성 같은 여성으로 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시도이며 보다 완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 글램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구분을 초월한 패션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을 채택함으로써 그 때까지의 가치관을 더욱 폭넓고 심오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 근대 이래로 남성은 단정하게 짧은 머리스타일, 여성은 긴 머리스타일을 고수해 왔다. 여성의 긴 머리는 여성나음을 상징하며 남성들에게 섹스어필했다. 반대로 짧은 머리는 남성적이고 보이쉬(Boyish)하다고 여겨져 왔다. 긴 머리가 여성스러움을 상징한 이래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단념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헤어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양성적 이미지란 헤어스타일이 이성의 이미지를 일부 혹은 전체를 도입하거나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혼돈된 경우를 말한다.

〈그림 13〉은 데이빗 보위(David Bowie)의 트레이드마크인 지기 헤어스타일이다. 윗머리를 짧게 잘라서 위로 꽃꽂이 세우고 뒷머리는 길게 늘어뜨렸다. 주황색으로 염색한 지기 헤어스타일은 여성성을 도입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스타일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즐겨함으로써 남녀의 구별이 없었으며, 게리 글리터(Garry Glitter)와 로드 스투어트(Rode Stewart)에게 받아들여졌고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난 핑크 헤어스타일의 다양하게 염색한 닭뿔형 헤어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림 14〉는 데이빗 보위가 그의 앨범 헝키도리(Hunky Dory)에서 긴 머리에 피머를 하고 노란색으로 염색한 모습으로서 여성적인 섹시함과 아름다움으로 앤드로지너스를 표현하고 있다. 글램 헤어스타일에서의 앤드로지너스는 남성들이 긴 피머 스타일이나 부풀린 스타일 등의 여성적인 특징을 많이 차용하였다. 헤어의 색상에 대해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금발은 우둔하다고 하는 부정적인 선입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이상적인 컬러로서 섹시함과 관련되고, 반대로 어두운 머리색은 남성의 이상적인 색으로서 힘과 지성 등을 나타낸다고 여겨 왔다. 글램 헤



〈그림 13〉 www.5years.com/costume.htm



〈그림 14〉 www.5years.com/costume.htm

26) 이빈선,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19C 중반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권 6호 (1999), p. 781.

어스타일에서는 남성이 여성적인 긴 머리스타일과 밝은 염색을 하고, 여성은 남성적인 짧은 머리스타일과 어두운 염색을 하였다.

2) 핑크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에서 앤드로지너스는 단순히 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의 길이나 색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양성을 혼합, 절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은 이성 간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아이템을 자유롭게 교차하여 착용함으로써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없애고자 시도하였다. 정신적인 측면의 앤드로지너스의 개념을 복식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을 통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을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시킴으로써 앤드로지너스는 관념적인 개념과는 달리 바이섹슈얼리티(Bisexuality)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핑크는 비상식적인 행위와 괴기스러운 메이크업, 가죽점퍼를 비롯한 과격한 의복, 반항적인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기존의 성 관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지배적인 가치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였다.

<그림 15>는 닭뿔 모양의 헤어스타일이다. 밑머리의 일부를 아주 짧게 자르고 위의 머리만 앞이마에서 목 뒷덜미까지 길게 남긴 후 뽀족하게 세웠다. 또한, 여성적인 주황색과 남성적인 파란색을 함께 사용하여 염색하였는데 남녀 구별 없이 선호하였다.

<그림 16>에서는 밑머리를 짧게 하고 위의 머리를 길게 남겨서 조금씩 가닥을 나누고 각 가닥마다 꼬아서 작은 스파이크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남녀의 구별이 모호한 앤드로지너스적 표현이다.

여성의 색상을 생각하면 흔히 빨강, 핑크, 노랑 등의 따뜻한 색을 떠올린다. 반대로 남성의 색은 파랑,



<그림 15> 미용문화사(전 선정 외), p. 206.



<그림 16> Wave on Hair (유현주 외), p. 21.

초록 등의 차가운 색상을 떠올린다. 빨간 장미와 빨간 립스틱의 이미지는 도전적이면서도 섹시한 여성을, 파스텔톤의 이미지는 귀엽고 보호하고 싶은 여성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핑크들은 장이 박힌 가죽점퍼를 입고 남녀 구별 없이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 등 원색의 머리 염색을 하여 앤드로지너스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핑크에서의 앤드로지너스는 여성들이 닭뿔형이나 스파이크형 등의 남성적인 특징을 많이 차용하였다. 이와 같이 핑크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내던지고 거칠고 두려워 보이는 모습을 추구함으로써 지배문화의 여성상인 고상한 취미와 우아한 행동의 위선을 비웃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글램 헤어스타일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상반되는 형태와 색상의 헤어스타일로 앤드로지너스를 표현하였으며, 핑크 헤어스타일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위협적이며 공격적인 형태와 색상을 추구함으로써 앤드로지너스를 표현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3. 추의 미

추미(醜美)의 조형적 특징에는 물형식과 부정확성

<표 2> 글램 헤어스타일과 핑크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앤드로지너스

구분	글램 헤어스타일	핑크 헤어스타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남성이 서로 상반되는 성을 추구하여 남녀 구별이 모호하다. - 남성은 여성적인 밝은 색상(주황색, 노랑색)으로 염색하고 긴 피머머리를 하여 앤드로지너스를 표현하였다. - 여성은 남성적인 어두운 색상(검정)의 짧은 머리를 하여 앤드로지너스를 나타내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형태와 색상을 추구하여 남녀 구별이 모호하였다. - 남성과 여성 모두 닭뿔 모양의 헤어스타일과 스파이크 모양의 헤어스타일에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 등의 현란한 원색으로 염색을 함으로써 앤드로지너스를 표현하였다.

이 있다. 몸형식은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 왜곡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인 사용 범주에서 벗어나 엉뚱한 배치를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부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다. 부정확성은 예술의 범칙성의 위배를 의미하며 예술적 불완전을 말한다²⁷⁾.

글램 록 가수들은 여자들의 화장과 의상을 입고 무대에 등장하는 일도 많았으며, 때로는 우주나 미래주의를 캐릭터로 갑자기 지구에 쳐들어온 화성의 외계인 적들처럼 모습을 꾸며 엉뚱하고 부자연스러운 왜곡을 통해 추의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펑크는 가장 비예술적이고 부적절한 아이템들인 안전핀, 플라스틱 집게, TV 부츠, 면도날 등을 그들 조합에 수용하였다. 또한, 체이나 안전핀, PVC, 고무 같은 값싸고 쓰레기 같은 재료와 더러운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불균형과 부조화, 몸형식 등을 통해 추의미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1) 글램 헤어스타일

전통적인 남성의 헤어스타일인 단정하고 짧은 머리에 비해 글램 가수들의 부풀린 헤어스타일은 아름답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모습이었다.

〈그림 17〉은 온 몸에 바니 페인팅을 하고 얼굴과 헤어스타일을 개의 모습으로 왜곡시킴으로써 추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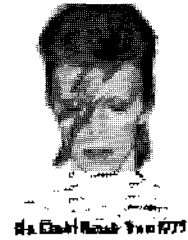
〈그림 18〉은 데이빗 보위의 앨범 표지 사진이다. 머리에는 주황색 염색을 하고 얼굴에는 엉뚱하게도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용한 빈개분양을 그렸다. 이러한 변칙적인 불빛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정신분열의 상징화는 지기와 보위의 정신적 고통을 가진 자아의 저속한 표현이며 추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9〉는 머리에 백공을 넣어 부풀리고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형태를 만들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비추어 볼 때 물형식적이며 부자연스러운 형태로서 추미의 표현이다.

인간의 감각은 부지불식간에 색채의 영향을 받는다. 색의 적절한 배분과 조화는 고전적인 의미의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그림 17〉 home.no.net/jron-ning/tidligalbum.htm



〈그림 18〉 www.5years.com/costume.htm



〈그림 19〉 www.5years.com/costume.htm

글램 헤어스타일에서는 색이미지 조화의 일탈을 통해서 고전적 의미의 미와는 다른 추의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2) 펑크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은 질, 선, 번의 디자인 요소에 의한 접목으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형태를 만든다.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며 통일감과 안정감을 준다. 그러나 펑크 헤어스타일에서는 형식과 균형을 무시한 불완전 스타일을 통해 추의미를 표현하였다.

〈그림 20〉은 머리 끝부분을 밝게 탈색한 후 머리가닥을 아주 살게 나누어 잡고 꼬아서 의도적으로 지저분하게 연출한 스타일이다. 이는 불형식과 불완전을 통한 추의미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에서 빗머리를 완전히 빗어 버리고 빗머리만 강조함으로써 위와 아래의 머리가 균형이 맞지 않아 추의미를 엿볼 수 있다. 얼굴에는 분터치를 길고 진하게 히었으며, 눈썹을 확장시켜 새의 부리 모양을 그림으로써 형태의 왜곡에 의한 추의미를

27) 최비라,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추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72.

표현하고 있다.

<그림 22>에서는 밑머리는 두상에 밀착시키고 윗머리만 높게 세워시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 사람의 머리에 노란색, 주황색, 연두색, 갈색 등 네 가지 색상으로 염색을 하여 색이미지의 부조화에 의한 추의 미가 표현되었다.

핑크 헤어스타일은 빨간색과 초록색의 보색대비나 분홍색 등의 취란한 모발 염색으로 색의 부조화를 통해 추의 충격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그들의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글램 헤어스타일은 형태의 왜곡과 색이미지의 부조화를 통해서 추의 미를 표현하였으며, 핑크 헤어스타일에서는 형태의 불완전, 불형식, 색이미지의 부조화를 통해서 추의 미를 표현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그림 20> Stree Style (Ted Polhemus) p. 92.



<그림 21> 미용문화사(전선정 의), p. 211.



<그림 22> Decades Of Beauty (Kate Mulvey), p. 181.

<표 3> 글램 헤어스타일과 핑크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추의 미

구분	글램 헤어스타일	핑크 헤어스타일
특징	- 형태의 왜곡과 색이미지의 부조화를 통해 기존의 미의식을 파괴한 스타일을 함으로써 추의 미를 나타내었다.	- 형태의 불완전, 불형식 등으로 인해 기존의 미의식을 파괴하여 추의 미를 표현하였다. - 빨간색과 초록색, 파란색과 주황색의 보색대비로 인한 색이미지의 부조화에 의한 추의 미가 표현되었다.

4. 페르소나

분석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는 내가 나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남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를 더 크게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페르소나에 입각한 태도는 주위의 일반적인 기대에 맞추어 주는 태도이며, 외재와의 적응에서 편의상 생긴 기능 콤플렉스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환경에 대한 나의 작용과 환경이 나에게 작용하는 체험을 거치는 동안 형성된다. 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자아는 차츰 자기도 모르게 집단정신에 동화되어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개성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시되었다고 말한다. 자아와 페르소나의 동일시는 한 개인을 집단이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히 맞추어 주는 사람으로 비치게 한다²⁸⁾.

데이빗 보워와 마크볼란 등 글램 록 가수들은 복식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통해서 모드(Mod)로부터 사이키델릭(Psychedelic)으로 적절한 때에 변신을 하곤 하였다. 마크 볼란이 우주십자군(Cosmic Crusader)으로 또는 보워가 지기 스타더스트(Ziggy Stardust)나 알라딘 세인(Aladdin Sane)으로 각각 변신함으로써 그들은 페르소나를 통한 자신들의 표현 의지를 드러내었다.

핑크들은 스파이크 모양과 닭 볏 모양의 공격적인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전사의 페르소나를 표현하며 그들의 강인함을 과시하였다.

1) 글램 헤어스타일

페르소나(Persona)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말한다. 가면을 착용한 연극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듯이 글램 록 가수들은 상황에 따라 의복은 물론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까지 변

28) 신세정, “사외적 가면 페르소나를 통한 자아 표현 연구” (국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3-4.

이루었다. 이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IV. 결 론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으로 대중사회가 도래하면서 생활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까지의 지배문화와는 다른 차별화된 문화들이 생성되었다. 1970년대 글램과 핑크는 패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을 저항의 상징적 수단으로 하여 자신들의 욕구와 불만을 표출하였다.

본 논문은 1970년대의 글램 패션과 핑크 패션의 공통적 특성을 분석의 틀로 하여 글램 헤어스타일과 핑크 헤어스타일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글램 패션과 핑크 패션의 공통적 특성인 저항, 앤드로지너스, 추(醜)의 미(美), 페르소나가 헤어스타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글램 헤어스타일과 핑크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저항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글램 헤어스타일에서는 전통적 남성의 헤어 길이와 상반되는 웨이브 진 긴 머리와 자연모발에 인공적인 색상을 추가하여 주황색이나 파란색의 염색을 함으로써 반규범적인 헤어스타일로 전통과 기성세대에의 저항적 의지를 표현하였다.

핑크 헤어스타일에서는 고전적 헤어스타일의 단정하고 안정된 형태에 대한 도전으로 머리카락의 일부분을 완전히 밀어버리거나 아주 짧게 자르고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였다. 흰색의 현란한 모발 염색을 통해 그들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고 외부세계에 대한 저항적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둘째, 글램 헤어스타일과 핑크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글램 헤어스타일에서는 남성들이 웨이브 진 긴 머리를 주로 하였으며, 여성적인 노란색이나 주황색의 모발 염색도 서슴지 않았다. 반대로 여성들은 짧은 헤어스타일을 함으로써 남성적 특성을 드러내었다. 핑크 헤어스타일에서는 남녀가 동일하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헤어스타일과 현란한 흰색의 머리 염색으로 앤드로지너스를 표현하였다.

셋째, 글램 헤어스타일과 핑크 헤어스타일에 나타

난 추의 미를 비교분석한 결과, 글램 헤어스타일에서는 머리에 백분을 넣어 과장되게 부풀림으로써 균형미를 파괴하고 색이미지 조화의 일탈을 통해 추의 미를 표현하였다.

핑크 헤어스타일에서는 헤어스타일의 위협적인 형태와 현란한 색상에서 추(醜)의 미(美)를 표현하였다. 핑크 헤어스타일은 전체적인 머리의 형태가 불균형을 이루거나 어느 한쪽 부분만 강조하여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불균형적인 형태를 나타내었다. 밀머리는 완전히 밀어버리고 중간의 머리만 곳곳이 세움으로서 고전적인 미의 개념에서 탈피한 그들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핑크 헤어스타일은 빨간색과 초록색의 보색대비 등 현란한 모발 염색으로 색이미지의 부조화를 통해 추의 충격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그들의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넷째, 글램 헤어스타일과 핑크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페르소나를 비교분석한 결과, 글램 헤어스타일에서는 우주적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이나 동물의 페르소나를 통해 현실 도피와 앤드로지너스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핑크 헤어스타일에서는 주변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밀어 버리고 윗머리만 남겨 위로 뽕치는 공격적인 헤어스타일로 전사의 페르소나를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불만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패션과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연극무대의 주인공으로 변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내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의 글램과 핑크는 가시적인 스타일이나 그 이미지와 상징이라는 표피에 혼신을 기울여 패션과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글램 패션과 핑크 패션은 같은 시기에 음악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졌으나, 글램 패션은 우주와 미래의 이미지에 집착함으로써 현실도피의 경향을 보인 반면 핑크 패션은 그들의 스타일을 통해 기성세대에 저항함으로써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두 헤어스타일을 비교분석한 결과, 글램 헤어스타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앤드로지너스였다. 그들은 헤어스타일의 전통적인 색상과 형태에 도전함으로써 성역할의 전복을 꾀하였다. 현대 패션에서

핑크에 비해 글램이 부각되지 못했던 것은 글램의 외적 요소들이 핑크로 일부 흡수되었고, 그들의 사상 자체가 도전적이라기보다는 사이키델릭이나 우주지향적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 도피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핑크 헤어스타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저항이었다. 그들은 닭뿔형이나 스파이크형 등의 헤어스타일에 현란한 염색을 하여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기성세대에 저항하며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현대 패션에서 핑크가 하이 문화(High Culture)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문화가 강하게 대두되면서 핑크의 저항정신과 청소년들의 도전의식이 상통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외모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글램과 핑크족들이 그들만의 헤어스타일을 통해 개성과 정체성을 추구하려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가 다원화 될수록 각자의 개성과 정체성 표현의 중요한 요소로서 헤어스타일의 역할은 더욱 더 부각될 것이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 된 조형적 특성으로 글램과 핑크 헤어스타일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차숙 (2002). “하위 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기영 (2004). “현대 패션에서 헤스타일이 지니는 의미-젠더와 문화 정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8호.
- 김경희 (1996). “Street Fashion의 발생과 유행현상.” 대구 효성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1*. 서울: 교문사.
-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반미학(Anti Aesthetics) 열린 패션(Open Fashion)을 중심으로.” *복식* 38호.
- 김순자 (2002). “핑크 스타일의 상징적 의미와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52권 6호.
- 김은아 (2000). “글램 스타일의 디자인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이사 (2002). “포스트모던 음악의 등장과 민중문화 전통의 재건 -1970년대 글램 록과 핑크 록에 대한 신문화사적 해석.” *미국사 연구* 16호.
- 손향미, 박길순 (2005). “현대 핑크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29권 11호.
- 신세정 (2004).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를 통한 자아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2000). *복식 문화*. 서울: 교문사.
- 유원주, 김미선, 김상은, 송희라, 이수인, 정지영 (2004). *Wave on Hair*. 서울: 청구문화사.
- 이민선 (1999).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19C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권 6호.
- 이부영 (1978). *분석 심리학 -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 이현주 (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Glam에 관한 연구 -David Bowie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혁 (2003). “21세기 전반기 하이패션에 나타난 하위 문화 스타일 -핑크 록을 중심으로-.” *복식* 53권 2호.
-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 (2004).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 정해순 (1992). “팝뮤직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2004). *서양복식 문화사*. 서울: 교문사.
- 최미라 (2004).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추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Russell, Douglas A. (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New Jersey: Englewood Cliffs & co. Inc.
- Simson, J. A. and E. S. C. Weiner (1989).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ulvey, Kate and Melissa, Richards (1998). *Decades of Beauty*. London: Octopus Publishing Group Ltd.
- “앤드로지너스” [2006년 11월 8일 검색]. *NAVER* 백

과사전,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search.naver.com/>

“페브소나” [2006년 11월 8일 검색]. NAVER 백과사전,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search.naver.com/>

Gove, Philip Babcock (1969)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Merriam Webster.

Roysbuker (1999). *대중음악사전*. 이정엽, 장호연 역. 서울: 한나래.

Polhemus, Ted (1997) *Streetstyle From Sidewalk To Catwalk*. London: Thames & Hudson Ltd., http://www.changgo.com/past/artist/20000310/artist_01.htm.

<http://www.5years.com/costumc.htm>

<http://www.vegas.eclipse.co.uk/>

<http://www.empas.com/>

<http://cn.wikipedia.org/wiki/http://home.no.net/jronming/>